

## 일본의 對中 수출규제

- 일본이 8월 1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함에 따라, 희토류 관련 고성능자석과 그 제조장치, 관련제품의 對中수출이 규제됨
- 이에 따라 對中 합작 사업에 필요한 장치의 對中수출 및 기술이전이 어렵게 되어 수요업체의 공급난이 야기되는 한편, 중국은 일본의 對中수출규제에 크게 반발, 對日통관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일본 내에서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對中 기술유출 방지를 우선시한 경제산업성의 對中수출규제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음

### □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른 대중 수출규제

- 일본 TDK, 히타치금속 등 일본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성능 자석을 합작 생산기로 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이유는 일본의 법령 개정으로 합작 사업에 필요한 장치의 對中수출 및 기술이전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
- 경산성이 8월 1일부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 고성능 자석과 그 제조장치, 관련제품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했기 때문으로 수출기업은 자석이 미사일 등 대량병기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함
  - 고성능 자석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이유로 들고 있음
  - 희토류 등 희소금속은 병기의 소재로도 사용되나 고성능 자석이 수출규제를 해야 할 만큼 무인공격기 등의 개발에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경산성은 국제적인 합의를 고려한 안전보장상의 재검토로 무역제한이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석메이커들은 “가령 장치를 현지 조달하여 공장을 건설한다 해도 고객의 개발이나 설비의 보수가 불가능하여 조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 對中규제 강화의 배경

- 규제강화의 배경에는 자석원료로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미국·유럽과의 통상마찰임
  - 마찰이 장기화되는 경우, 고성능 자석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량이나 PC 등의 생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 에코카 등의 모터에는 고성능 네오지움 자석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석의 세계 수요는 연간 1만~1만 3천톤
  - 히타치금속, TDK, 신에츠화학공업 등 3개사가 시장점유율 100%를 독점하고 있으며 현재는 3개사 모두 일본에서만 생산하고 있음
- 고성능 자석에는 지스프로시움이라는 희토류가 필요하며 절대량이 중국에서 생산
  -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제한을 했기 때문에 히타치금속은 2013년을 목표로, TDK는 쇼와전공과 제휴, 2014년을 목표로 자석의 중국생산을 검토하고 있었음
- TDK와 쇼와전공은 최근 합작생산을 검토해 온 중국기업에게 공장건설을 무기 연기한다고 전달하였으며, 히타치금속도 중국에 신규공장 건설은 포기하지는 않았으나 현재로는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기업의 이익과 기술의 중국유출 방지

- 자동차메이커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우선시하는 기업과 첨단기술의 중국유출을 우려하는 경산성과의 입장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일본·미국·유럽이 WTO 협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중국정부에 수출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 일본의 자석메이커 관계자에 따르면, WTO제소를 고려하여 중국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경산성으로부터 요청이 있었다고 함

## □ 일본의 수출규제에 중국이 크게 반발

-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대하여 중국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본기업은 자석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여 녹이 쓸지 않도록 가공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반제품이나 가공이 끝난 자석을 이달 중순부터 중국의 세관에서 봉쇄되고 있음. 최근 통관절차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있으나 통관에 소요되는 일수가 대폭 길어짐

## □ 평가와 시사점

-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독점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희소자원을 외교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여 수출규제를 하는 일본정부의 조치도 문제라는 비판과 함께, 일본의 규제에 중국이 반발하여 통관절차 등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세계시장에서 각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일본이 기술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구미기업들로부터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임
- 경쟁력있는 기술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한 수출규제가 자국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마이너스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여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임
- 일본이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라는 차원에서 고성능 자석류 등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라면 우리도 유사한 수출규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게 없음
-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일본정부의 속내는 對中기술유출 방지, 나아가 희토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성 대응 차원에서 對中 수출을 규제했을 가능성이 큼
- 이럴 경우 중국의 추가적인 對日규제를 촉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일·중간 무역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음
- 뿐만 아니라 일본의 관련 업계로는 對中 진출이 제약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하이브리드차량이나 PC 등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 우리기업들도 對中의존도가 높은 지스프로시움을 사용하지 않는 자석개발이나 폐기된 자동차 재활용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일본경제신문(2012.7.28.)

일본경제신문(2012.8.4)